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폭염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 발표**

*주 전역에서 폭염 행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주지사의 시정연설 내용 추진*

*기관 이니셔티브는 폭염으로부터 소외 지역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중간 권고안 보고서 전문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관이 폭염으로부터 소외 지역사회를 비롯해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온 상승에 취약한 뉴욕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지사의 2022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기관간 투자 및 노력을 조정하여 지역사회 기후 영향을 완화하고 폭염 취약성 대응 최전선에 있는 소외 지역사회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늘 발표된 중간 권고안은 1차 종합 폭염 행동 계획(Extreme Heat Action Plan)의 일환으로 폭염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고 뉴욕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가 받는 불평등한 영향을 줄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염은 매년 많은 뉴욕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 및 유색인 지역사회에 피해를 줍니다. 심한 폭풍과 폭염은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폭염 문제를 해결할 공동의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한 권고안은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여름 폭염으로 불평등하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기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초 Hochul 주지사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에 기후 변화로 인해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폭염 행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DEC와 NYSERDA는 20개 이상의 주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폭염 행동 계획 워킹 그룹(Extreme Heat Action Plan Work Group, EHAPWG)을 소집하여 주정부 전반에서 소외 지역사회 폭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간 권고에는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안이 포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워킹 그룹은 장기적인 협력을 시행하여 폭염 및 이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간 권고안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소외 지역사회](#) 및 폭염 취약 인구의 대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계획은 특히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불평등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사회에 집중했으며 취업, 레크리에이션, 소외 지역사회 등에 대한 폭염 피해 완화를 위한 주정부의 기존 접근법에서 미비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Basil Seggos 환경 보존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지역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DEC는 폭염 관련 질병 위험이 가장 큰 소외 지역사회에서 혁신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주지사의 요청에 계속 응답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다양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선도적인 노력과 함께 이러한 조치는 생명을 살리고 주 전역에서 평등과 기후 정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Doreen M. Harris NYSED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적정가격 냉방 접근권 보장은 취약한 뉴욕 주민에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 전역에서 기온이 급등한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관 간 협력 시도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및 건강 문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오늘 발표된 권고안은 최종 종합 행동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기후 변화의 결과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악천후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폭넓은 회복 탄력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중간 권고안에는 폭염 비상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가 대비하고 올 여름 폭염 피해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권고안은 계획, 조정, 공공 냉방 구역, 폭염 경고 시스템 및 프로토콜, 커뮤니티 파트너십, 주거 및 냉방 등 여섯 개의 행동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EHAP 시행에 따라 즉시 시행 및 기획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냉방 센터 시설을 제공할 파트너를 찾고, 주립공원, 수영장, 레크리에이션 부지, 기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주정부 시설을 활용하는 등 냉방 센터 및 쉼터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폭염 중 연락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폭염 유틸리티를 개발합니다.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뉴욕 주민이 주택 냉난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을 확대하고 기존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 대응 프로그램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고려하여 냉방 및 전기화 관련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정부의 장기적 역량을 탐색합니다.
- 소외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폭염 적응 계획(Extreme Heat Adaptation Plan)을 수립하고 환경 정의 단체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폭염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 폭염 및/또는 습도 경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명하고 일관되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 폭염 비상 조정팀을 소집하여 2023년 6월 1일까지 주정부 종합 비상 관리에 폭염 관련 위험 조항을 마련합니다.
- 장단기 행동 권고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 자원과 역량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주 폭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뉴욕주 기관은 뉴욕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기상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유틸리티와 협력하여 폭염 지수가 100을 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EC 기상학자가 오존 또는 미세먼지의 오염 수준이 대기질 지수(AQI) 값이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자 DEC와 DOH는 미국 서부 대기질 건강 주의보(Air Quality Health Advisories)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 대기질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s://www.dec.ny.gov/energy/125801.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